2026.01.07.

2025년 신용등급 변동현황

-2025년 상승 우위 기조 전환

김동혁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02.368.5533
kimdh@korearatings.com

김정현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02.368.5347
jhkim911@korearatings.com

1. 2025년 신용등급 변동현황

한국기업평가는 2025년 초 장기등급(회사채, ICR, IFSR 등)을 보유한 488개사와 단기등급(CP, STB)을 보유한 271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분석하였다.

건설·이차전지·석유화학·부동산신탁·저축은행 업종의 실적부진이 지속되었지만, 방산·전력기기·조선·항공 업종의 우호적 사업여건 및 실적 개선으로 신용등급 상향 업체수가 하향 업체수를 상회하였다.

장기등급은 상승 23건, 하락 17건(부도 4건 제외)이었고, 단기등급은 상승 9건, 하락 7건(부도 1건 제외)이었다. 단기등급 상승 9건에는 단기등급만 보유한 4개사와 장기등급은 유지되고 단기등급만 상승한 1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단기등급 하락 7개사에는 단기등급만 보유한 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표 1] 장단기 신용등급 변동현황

(단위: 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장기등급		업체수	481	500	516	513	488
(회사채, ICR IFSR, 후순위)	전체	상승	25	25	14	14	23
		하락(부도제외)	19	16	26	25	17
	투자	업체수	423	455	457	455	440
		상승	24	25	14	14	21
		하락(부도제외)	9	11	19	19	14
	투기	업체수	58	55	59	58	48
		상승	1	0	0	0	2
		하락(부도제외)	10	5	7	6	3
단기등급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전체	업체수	256	289	268	268	271
		상승	10	15	4	4	9
		하락(부도제외)	7	7	11	11	7
	투자	업체수	254	286	266	265	269
		상승	10	14	4	4	8
		하락(부도제외)	7	7	11	10	7
	투기	업체수	2	3	2	3	2
		상승	0	1	0	0	1
		하락(부도제외)	0	0	0	1	0

주) 1. 연초 등급보유 업체 기준이며, 기중에 등급을 신규취득 후 변동된 업체나 등급소멸 업체는 제외
2. 롯데케미칼의 연초 회사채 등급(AA↑)은 금융기관 보증에 따라 보증채로 전환되어 동사의 신용도와 무관한 AAA(S) 등급이 부여되어 소멸처리하였음. 2025년 3월 6일 신규로 취득한 ICR 등급[AA(N)]은 6월 30일 AA-(S)로 하락되었지만, 이는 기중에 등급을 신규취득 후 등급이 하락된 것으로 하락 업체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 2024년부터 연초 기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해당 신용등급이 부여된 채권이 1분기 중 발행된 경우 연초 신용등급 보유 업체수에 포함
4. 부도기업: 2019년 3개사, 2020년 2개사, 2021년 1개사, 2022년 없음, 2023년 1개사, 2024년 2개사, 2025년 5개사

[표 2] 2025년 금융부문과 일반기업부문 신용등급 변동현황

(단위: 개)

구분		장기등급		단기등급	
		금융부문	일반기업부문	금융부문	일반기업부문
전체	업체수	159	329	82	189
	상승	4	19	2	7
	하락(부도제외)	4	13	2	5
투자	업체수	159	281	82	187
	상승	4	17	2	6
	하락(부도제외)	4	10	2	5

주) 1. 연초 등급보유 업체 기준이며, 기중에 등급 신규취득 후 변동된 업체나 등급소멸 업체는 제외
2. 부도업체: (장기) 벽산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단기) 홈플러스

1) 신용등급 상승: 28개사

- 장기등급 23건, 단기등급 9건(단기등급만 보유 4개사, 장기등급 유지되고 단기등급만 상승 1개사)
- 장기등급 상승 23개사의 연초 등급전망
  ·'긍정적' 등급전망 16개사, '긍정적 검토' 1개사, '안정적' 등급전망 6개사

① 금융부문: 5개사

- 장기등급 4건, 단기등급 2건(장기등급 유지되고 단기등급만 상승 1개사)
- 장기등급 상승 4개사의 연초 등급전망
  ·'긍정적' 등급전망 3개사, '긍정적 검토' 1개사
- 생명보험 2개사, 손해보험 1개사, 할부리스 1개사 장기등급 상승
- 증권 1개사, 장기등급 유지되고 단기등급만 상승

② 일반기업부문: 23개사

- 장기등급 19건, 단기등급 7건(단기등급만 보유한 업체 4개사)
- 장기등급 상승 19개사의 연초 등급전망
  ·'긍정적' 등급전망 13개사, '안정적' 등급전망 6개사
- 신용등급 상승업체 중 투기등급군 2개사
- 방산 3개사, 조선 3개사, 제약 3개사, 자동차부품 2개사, 항공 1개사, 발전 1개사 등

[표 3] 2025년 신용등급 상승 업체

업체	장기		단기		계열	업종	비고
	연초	기말	연초	기말			
대한전선	A-(P)	A(S)	-	-	호반	전선	회사채/ICR
대한항공	A-(S)	A(S)	-	-	한진	항공	회사채
동두천드림파워	A-(P)	A(S)	-	-	한국전력공사	발전	ICR
동방	BBB-(P)	BBB(S)	A3-	A3	-	운송	회사채, CP/STB
디에이치오토리드	B-(P)	B+(P)	-	-	-	자동차부품	회사채
삼보모터스	BB(P)	BB+(S)	-	-	-	자동차부품	회사채
삼성바이오로직스	AA-(P)	AA(S)	-	-	삼성	제약	회사채
삼성중공업	BBB+(P)	A-(S)	A3+	A2-	삼성	조선	ICR, CP/STB
삼양식품	A(P)	A+(S)	-	-	-	음식료	회사채
에이치디현대	A(P)	A+(S)	-	-	HD현대	지주회사	회사채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A(P)	A+(S)	-	-	HD현대	전력기기	회사채
에이치디현대중공업	A(P)	A+(S)	-	-	HD현대	조선	회사채
엘지씨엔에스	AA-(P)	AA(S)	-	-	LG	SI	회사채/ICR
제이더블유홀딩스	BBB-(P)	BBB(S)	-	-	-	제약	회사채
한진칼	BBB+(S)	A-(S)	-	-	한진	지주회사	회사채
한화시스템	AA-(S)	AA(S)	A1	A1	한화	방산	회사채, CP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A-(S)	AA(S)	A1	A1	한화	방산	회사채, CP
한화오션	BBB+(S)	A-(S)	A3+	A2-	한화	조선	회사채, CP
현대글로비스	AA(S)	AA+(S)	-	-	현대자동차	물류	회사채
CJ푸드빌	-	-	A3+	A2-	CJ	외식사업	CP
두산건설	-	-	B	B+	-	건설	CP/STB
일동제약	-	-	A3	A3+	-	제약	CP
현대로템	-	-	A2	A2+	현대자동차	방산	CP/STB
한화생명보험	AA+(P)	AAA(S)	-	-	한화	생명보험	IFSR
DB손해보험	AA(P)	AA+(S)	-	-	DB	손해보험	후순위채
아이엠캐피탈	A+(P)	AA-(S)	A2+	A1	아이엠금융	할부리스	회사채, CP
에이비엘생명보험	A↑	A+(S)	-	-	우리금융	생명보험	후순위채
우리투자증권	A+(S)	A+(S)	A2+	A1	우리금융	증권	ICR, CP/STB

주) 1. 등급전망은 (S) 안정적, (P) 긍정적, (N) 부정적이며, 등급감시는 ↑ 긍정적 검토, ↓ 부정적 검토, ◊ 점진적 관찰
2. 연초 등급보유 업체 기준이며, 기중에 등급 신규취득 후 변동된 업체나 등급소멸 업체 제외, 보증 CP·BR제외

2) 신용등급 하락: 19개사

- 장기등급 17건, 단기등급 7건(단기등급만 보유한 업체 2개사)
- 장기등급 하락 17건의 연초 등급전망
  - '부정적' 등급전망 15개사, '부정적 검토' 1개사, '안정적' 등급전망 1개사
- 연초 등급 기준 투자등급군 16개사, 투기등급군 3개사

① 금융부문: 5개사

- 장기등급 4건, 단기등급 2건(단기등급만 보유한 업체 1개사)
- 장기등급 4건의 연초 등급전망 모두 '부정적', 모두 투자등급군
- 저축은행 2개사, 생명보험 1개사, 부동산신탁 1개사 장기등급 하락
- 할부리스 1개사, 단기등급 하락

② 일반기업부문: 14개사

- 장기등급 13건, 단기등급 5건(단기등급만 보유한 업체 1개사)
- 장기등급 13건의 연초 등급전망
  · '부정적' 등급전망 11개사, '부정적 검토' 1개사, '안정적' 등급전망 1개사
- 연초 등급 기준 투자등급군 11개사, 투기등급군 3개사
- 건설 3개사, 지주회사 2개사, 이차전지 2개사, 음식료 1개사, 영화관 1개사 등

[표 4] 2025년 신용등급 하락 업체

업체	장기		단기		계열	업종	비고
	연초	기말	연초	기말			
동원건설산업	BBB(N)	BBB-(S)	-	-	-	건설	회사채
롯데건설	A+(N)	A(S)	A2+	A2	롯데	건설	회사채, CP
롯데지주	AA-(N)	A+(S)	A1	A2+	롯데	지주회사	회사채, CP
리뉴어스	BBB+(S)	BBB(S)	A3+	A3-	-	환경사업	ICR, CP
쌍용씨앤이	A(N)	A-(S)	-	-	-	시멘트	회사채
에스지이	B+(N)	B(S)	-	-	-	아스콘	회사채
에스케이스페셜티	A+↓	A(S)	-	-	-	특수가스	회사채
에스케이씨	A+(N)	A(S)	A2+	A2	SK	지주회사	회사채, CP
에코프로	A-(N)	BBB+(S)	-	-	에코프로	이차전지	회사채
에코프로비엠	A(N)	A-(S)	-	-	에코프로	이차전지	회사채
유니슨	BB-(N)	B+(S)	-	-	-	풍력발전	회사채
일성건설	BB+(N)	BB(S)	-	-	-	건설	회사채
풀무원식품	A-(N)	BBB+(S)	-	-	-	음식료	회사채
롯데컬처웍스	-	-	A2-	A3+	롯데	영화관	CP
더케이저축은행	BBB(N)	BBB-(S)	-	-	교직원공제회	저축은행	ICR
바로저축은행	BBB(N)	BBB-(S)	-	-	-	저축은행	ICR
케이디비생명보험	A+(N)	A(S)	-	-	한국산업은행	생명보험	후순위채
코리아신탁	BBB+(N)	BBB(S)	A3+	A3	BS	부동산신탁	ICR, CP
농심캐피탈	-	-	A3+	A3	농심	할부리스	CP/STB

주) 1. 등급전망은 (S)안정적, (P)긍정적, (N)부정적; 등급감시는 ↑긍정적 검토, ↓ 검토, ◊점진적 관찰
2. 연초 등급보유 업체 기준이며, 기중에 등급 신규취득 후 변동된 업체나 등급소멸 업체 제외, 보증 CP·BR제외
3. 롯데케미칼 제외

2. 등급전망 부여 현황

2025년 신용등급은 상승 우위 기조로 전환

- 연초 '긍정적' 등급전망 부여 업체 25개사 중 16개사의 등급 상승, 등급상승업체 비중 64%
- 연초 '부정적' 등급전망 부여 업체 39개사 중에서 16개사의 등급 하락, 등급하락업체 비중 41%

2025년말 '부정적' 등급전망 부여 업체수 큰 폭 감소,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 전망 우세

- 2024년말 대비 '부정적' 전망 업체수는 큰 폭 감소
- 2025년말 장기등급에 대한 등급전망 부여 현황은 '긍정적' 전망 25개사, '부정적' 전망 29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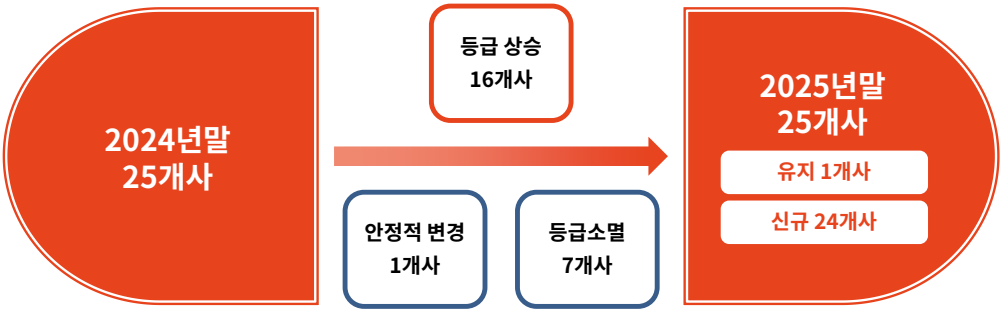
[표 5] 장기등급의 등급전망 부여 현황

구분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기타(유동적/없음)		합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전체 등급	24.12.31	25	5.1%	417	85.5%	39	8.0%	7	1.4%	488
	25.12.31	25	5.3%	413	87.7%	29	6.2%	4	0.8%	471
투자 등급	24.12.31	20	4.5%	388	88.2%	28	6.4%	4	0.9%	440
	25.12.31	23	5.2%	393	88.3%	25	5.6%	4	0.9%	445

1) '긍정적' 전망

- 연초 '긍정적' 등급전망 부여 업체 25개사
  · 등급 상승 16개사, 유지 1개사, 안정적 변경 1개사, 등급 소멸 7개사
- 2025년 '긍정적' 등급전망 신규부여 24개사
  · 등급 상향 이후 '긍정적' 전망 부여 업체 5개사 포함
- 2025년말 기준 '긍정적' 등급전망: 25개사
  · 금융부문 6개사, 일반기업부문 19개사
  · 투자등급 23개사, 투기등급 2개사

[그림 1] '긍정적' 등급전망 변동 현황



주) 1. 등급상향후 등급이 소멸된 경우도 '등급소멸'로 분류
2. 등급상향후 긍정적 전망이 재차 부여된 경우 '등급 상승'으로 분류하고, 2025년말 '신규'에 포함
3. 등급소멸후 신규평가로 등급이 상승되고 긍정적 전망이 재차 부여된 경우 '등급소멸'로 분류하고, 2025년말 '신규'에 포함(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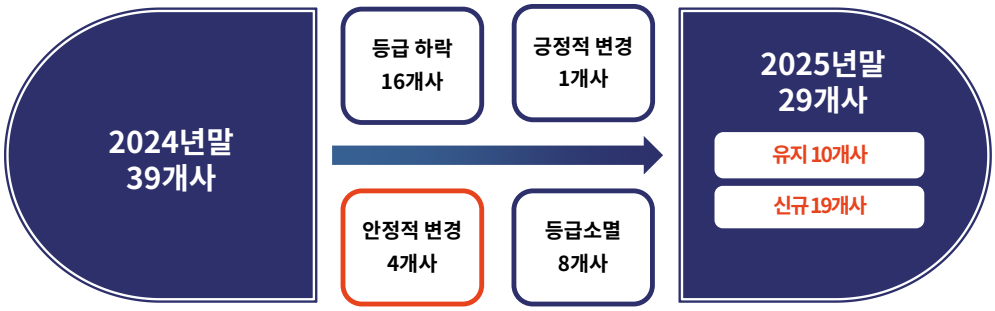
[표 6] 2025년말 기준 '긍정적' 전망 부여 업체

업체	등급	계열	업종	업체	등급	계열	업종
LG유플러스	AA	LG	통신	엘에스일렉트릭	AA-	LS	전력기기
디에이치오토리드	B+	-	자동차부품	티피	BB+	-	의류
이수페타시스	BBB	이수	전자	한화엔진	BBB-	한화	엔진
파라다이스	A	-	카지노,호텔	현대로템	A+	현대자동차	방산
풍산	A+	-	비철금속	현대코퍼레이션	A	-	종합상사
한진	BBB+	한진	운송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A-	-	지주회사
두산에너빌리티	BBB+	한진	전력기기				
삼양식품	A+	-	음식료	MG캐피탈	A-	MG새마을금고	할부리스
씨제이씨지브이	A-	CJ	영화관	케이카캐피탈	BBB	--	할부리스
에스케이하이닉스	AA	SK	반도체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A-	-	리츠
에이치디현대	A+	HD현대	지주회사	키움에프앤아이	A-	다우키움	NPL투자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A+	HD현대	전력기기	키움증권	AA-	다우키움	증권
에이치디현대중공업	A+	HD현대	조선	키움캐피탈	A-	다우키움	할부리스

2) '부정적' 전망

- 연초 '부정적' 등급전망 부여 업체 39개사
  · 등급하락 16개사, 등급소멸 8개사, 등급전망 '안정적' 변경 4개사, 등급전망 '긍정적' 변경 1개사
  ·'부정적' 등급전망 유지 10개사
- 2025년 '부정적' 등급전망 신규부여 19개사
  · 등급하향 이후 '부정적' 전망 부여 업체 없음
- 2025년말 기준 '부정적' 전망: 29개사
  · 금융부문 4개사, 일반기업부문 25개사
  · 투자등급 25개사, 투기등급 4개사

[그림 2] '부정적' 등급전망 변동 현황



주) 1. 등급하향후 등급이 소멸된 경우도 '등급소멸'로 분류
2. 부도업체는 '등급하락'으로 분류
3. 등급하향후 부정적 전망이 재차 부여된 경우 '등급 하락'으로 분류하고, 2025년말 '신규'에 포함

[표 7] 2025년말 기준 '부정적' 전망 부여 업체

업체	등급	계열	업종	업체	등급	계열	업종
대동	BBB+	-	농기계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A	SK	이차전지
디와이디	B-	-	화장품	에스케이지오센트릭	AA-	SK	석유화학
비에스한양	BBB+	보성	건설	에이치디현대케미칼	A	HD현대	석유화학
엔켐	BB+	-	이차전지	여천NCC	A-	-	석유화학
엘지화학	AA+	LG	정밀화학	제이티비씨	BBB	중앙	유선방송
제주대동	BBB+	-	부동산개발	한온시스템	AA-	-	자동차부품
콘텐트리중앙	BBB	중앙	지주회사	한화솔루션	AA-	한화	화학,신재생
포스코이앤씨	A+	포스코	건설	한화토탈에너지스	AA-	한화	석유화학
형지아이앤씨	B+	-	의류	현대엔지니어링	AA-	현대자동차	건설
호텔신라	AA-	삼성	호텔,레저	현대엘리베이터	A+	-	엘리베이터
깨끗한나라	BBB	-	제지				
동아에스티	A+	-	제약	하나자산신탁	A+	하나금융	부동산신탁
아주스틸	BB+	-	철강	신한자산신탁	A-	신한금융	부동산신탁
에스엘엘중앙	BBB	중앙	콘텐트 제작	푸본현대생명보험	A	푸본	생명보험
에스케이쉴더스	A	-	보안서비스	한국자산신탁	A	엠디엠	부동산신탁

주) 푸본현대생명보험 신용등급은 후순위채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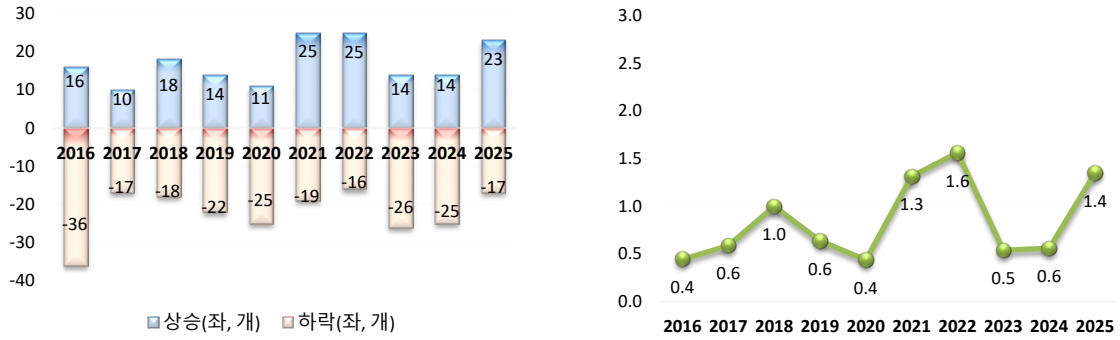
3. 2025년 신용등급 변동(등급전망 변경 포함)의 주요 특징

2024년: 등급하락 업체수가 등급상승 업체수 압도

2025년: 상승우위 기조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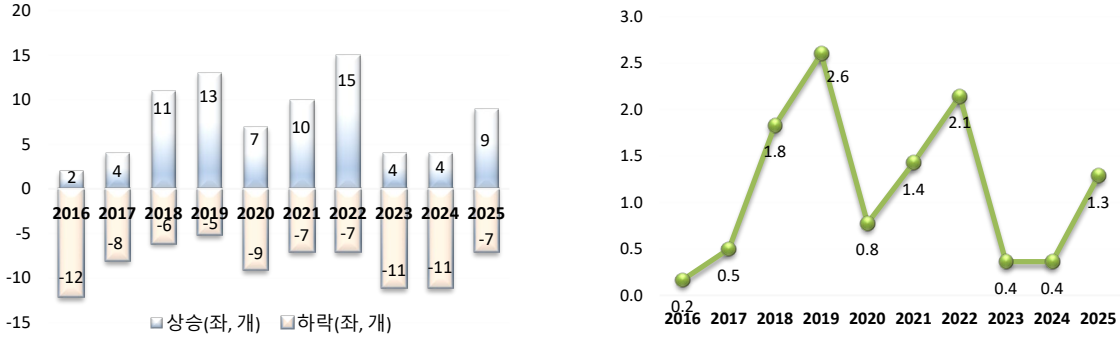
- 장기등급 Up/Down ratio
  - ·2023년 0.5배 ⇒ 하향 우위 기조 전환
  - ·2024년 0.6배 ⇒ 하향 우위 기조 지속
  - ·2025년 1.4배 ⇒ 상승 우위 기조 전환
- 단기등급 Up/Down ratio
  - ·2023년 0.4배 ⇒ 하향 우위 기조 전환
  - ·2024년 0.4배 ⇒ 하향 우위 기조 지속
  - ·2025년 1.3배 ⇒ 상승 우위 기조 전환

[그림 3] 장기등급(회사채, ICR, IFSR) 변동업체 수(좌), Up/Down ratio(우) (2016~2025)



주) 부도기업 제외

[그림 4] 단기등급(CP, STB) 변동업체 수(좌), Up/Down ratio(우) (2016~2025)



주) 부도기업 제외

2) 주요 업종 등급 및 등급전망 변동 현황 요약

① 부동산신탁: 영업수익 감소, 신탁계정대 확대와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크게 저하

- 등급 하향 조정 1개사
  · 코리아신탁
- 등급전망 '부정적' 변경 2개사, 신규 부여 1개사
  · 한국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신한자산신탁

② 저축은행: PF 부실 관련 부담 지속된 가운데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미흡

- 등급 하향 조정 2개사
  · 바로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③ 보험: 실적 및 제도 강화 대응력 양극화, 중소형 보험사 자본관리 부담 지속

- 등급 상향 조정 3개사
  · 한화생명보험, DB손해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 등급전망 '부정적' 변경 1개사
  · 푸본현대생명보험
- 등급감시 '부정적 검토' 대상 등록 1개사
  · 롯데손해보험(등급전망 '부정적' 변경 후 '부정적 검토' 대상 등록)

④ 할부리스: 자본확충에 기반한 영업기반 확대,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개선

- 등급 상향 조정 1개사
  · 아이엠캐피탈
- 등급 하향 조정 1개사
  · 농심캐피탈
- 등급전망 '긍정적' 변경 3개사
  ·MG캐피탈, 케이카캐피탈, 키움캐피탈

⑤ 방산: 수주잔고의 양적·질적 개선으로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

- 등급 상향 조정 3개사
  ·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⑥ 조선: 실적 우상향 모멘텀 유효, 공정 병목요인 최소화가 과제

- 등급 상향 조정 3개사
  ·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 등급전망 '긍정적' 변경 1개사
  · 에이치디현대중공업(등급 상향 조정 후 '긍정적' 등급전망 재부여)

⑦ 자동차부품: 불확실성 확대에도 일부 업체 실적 개선, 계열 리스크 해소

- 등급 상향 조정 2개사
  · 디에이치오토리드, 삼보모터스
- 등급 전망 '긍정적' 변경 1개사
  · 디에이치오토리드(등급 상향 조정 후 '긍정적' 등급전망 재부여)

⑧ 제약: 사업전략 및 R&D 성과로 인해 엇갈리는 펀더멘탈

- 등급 상향 조정 3개사
  · 제이더블유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동제약
- 등급전망 '부정적' 변경 1개사
  · 동아에스티

⑨ 건설: 재무안정성 저하, 운전자본 부담 지속

- 등급 상향 조정 1개사
  · 두산건설
- 등급 하향 조정 3개사
  · 롯데건설, 동원건설산업, 일성건설
- 등급전망 변경 3개사
  · 등급전망 '부정적' 변경 3개사: 비에스한양,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 등급전망 '안정적(N→S)' 변경 1개사: 한신공영

⑩ 석유화학: 장기 업황부진으로 실적 저하, 과중한 재무부담 지속

- 등급 하향 조정 1개사
  · 롯데케미칼(기중 신규로 부여하여 하락업체 list에 불포함)
- 등급전망 '부정적' 변경 3개사
  · LG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 에스케이지오센트릭

⑪ 이차전지: 전방산업 부진, 실적 저하 및 재무부담 가중

- 등급 하향 조정 2개사
  ·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 등급전망 '부정적' 변경 2개사
  · 엔켐,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유의사항]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